

교사 채용 투명성 위한 광주교육청 위탁 신청 마감 1주일 남았는데

뺨대는 사립학교... 학생 피해 걱정된다

2020년 이후 6년 동안

교사 900여명 정년퇴직

수급 차질로 교육 질 저하

광주시교육청의 '교사 채용 위탁' <광주일보 3월14일자 7면> 요구를 사립학교가 수용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청의 위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정교사 채용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진행중인 '신규 교사 공동채용' 신청 마감 기간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다.

사립학교 교사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는 게 교육청 입장이다. 반면, 사립학교측은 '인사권 침해'와 '간학 이념'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어 수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31일 신청 마감, 이번에도 외면? = 광주교육청은 오는 31일까지 사립학교 법인들을 대상으로 '2017학년도 하반기 신규 교사 공동채용' 위탁 신청을 받고 있다. 앞서, 교육청이 올 해 신규 교사 채용 절

차와 추진 계획을 담은 '사립 중등학교 정·현원 관리계획'을 마련해 69개 사립학교(중 25개·고 42개·특수학교 2개)에 통보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청은 올 하반기 채용을 위탁하는 사립학교의 경우 매년 치러지는 '공립학교 중등교사 임용시험' 과목과 달리, 전공 교과 위주로 과목을 조정해 갖 대학을 졸업한 응시자들과 경쟁해야 하는 기간제 교사들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또 선발 인원의 3~5배수 인원을 뽑는 1차 필기 시험만 위탁받아 관리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1차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한 2차 시험(수업 실연, 면접)은 학교별 특수성을 고려, 사립학교 법인에게 맡긴다는 계획이다.

남양학원을 포함한 일부 법인들은 이같은 점을 감안, 채용 신청서를 낼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상당수 사립학교 사이에서는 달린 게 별로 없다는 분위기다.

지난해의 경우 같은 기간 사립학교에 대한 '신규 교원 위탁채용' 신청을 받은 결과, 고작 1곳(금정학원)만 교사 채용 위탁 신청서를 냈었다.

당시만 해도 남양학원(동아여중·고) 채용 비리 사태가 터져나오면서 사립학교 채용 과정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신이 팽배했다. 장희국 교육감이 직접 '건전 사학은 지원하고 비리 사학은 엄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었다. 올해도 비슷하지 않겠냐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6년간 교사 918명 그만두는데 =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사 정원 감소가 가파르게 진행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당장, 전체 광주지역 사립학교 교사(3421명) 중 2020년 이후 6년 간 정년퇴직으로 교단을 떠날 정교사가 900명이 넘을 것으로 교육청은 파악하고 있다.

교육청은 오는 2020년이면 사립학교 교사 9%만이 만 62세로 정년 퇴직하는 것을 비롯, ▲2021년 107명 ▲2022년 173명 ▲2023년 173명 ▲2024년 197명 ▲2025년 172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교원 중 기간제 교원 비율도 높다. 전체 35개 사립학교법인 중 기간제 교원 비율이 20%를 넘는 법인이 16곳에 이르고 30%를 웃도는 사립학교 법인은 5곳에 달한다. 현재 교육청은 사립학교 법인들에 대해

교사 채용을 위탁하지 않을 경우 정교사를 채용할 수 없도록 방침을 정해 사실상 사립학교 내 기간제 교사들의 정교사 전환도 힘들어진 상황이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교사 정원 조정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교육 환경의 질 저하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교사 수급 대책이 절실하다는 게 교육청 분석이다.

◇교육청 위탁 사례는 = 여태껏 교육청의 채용 위탁 요구를 수용한 사례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광주교육청이 지난해 시의회에 제출한 '2012년 이후 사립학교 교원 채용 현황'에 따르면 교육청에 채용 전형을 위탁한 학교는 ▲세광학교(2012년·3명) ▲진흥중·고(2012년·4명) ▲조대부고(2012년·1명) ▲조대부중(2012년·1명) ▲조대여고(2012년·5명)에 불과하다.

광주지역 사립학교가 35개 법인(타 지역 법인 2·대학법인 3·사회복지법인 1 포함), 69개 사립학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사립학교측의 부정적 시각을 엿볼 수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5·18·37주년 오늘 어떤 일이

계엄군 어린이에게까지 무차별 총격 분풀이

광주 시내를 평화가 찾아왔지만, 시외는 공수부대의 보복과 학살로 울부짖었다.

5월24일 오후 1시30분께 11공수여단은 광주시 남구 진월동 원재마을 앞 원제저수지에서 목욕을 하던 어린이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이 총격으로 중학교 1학년 방



광범 군이 총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효덕초등학교 부근 마을 어귀에서 놀던 어린이들에게도 총격을 가했다. 민가를 향해서도 총을 쏘았다. 삼합동에서는 계엄군 간 총격전이 발생했다. 잠복해 있던 보병학교 교도대가 퇴각하던 공수부대를 시민군으

로 오인해 총을 쏘고, 공수부대가 응사하면서 총격전이 벌어졌 것이다.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민주수호 범시민결의대회'가 열렸다. 광기대회에서는 전두환 허수아비 화형식이 이뤄졌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6일 유엔본부에서 5·18 37주년 기념 세미나

'광주일지: 민주주의와 자유의 집단 기억' 주제

브루스 커밍스 등 주제발표

5·18민주화운동 37주년을 기념하는 국제 세미나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다.

5·18기념재단은 오는 26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유엔본부 제11콘퍼런스룸에서 '광주일지: 민주주의와 자유의 집단 기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주유엔대표부가 주최하고 5·18재단이 주관하는 세미나에는 노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대사, 한국학 학자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석좌교수, AP통신 특파원으로 5·18을 취재한 테리 앤더슨 기자 등이 주제발표를 한다.

난민 출신인 옴비 토나 광주대학교 기초교양학부 교수, 5·18 기록물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넘어넘어) 영문판 번역자 설삼수와 니 마티아스 등도 발제자로 나선다.

세미나에 이어 '넘어넘어' 영문개장판 공개 행사도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는 각국 외교관, 동아시아 연구자, 언론인, 미국 내 한인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5월단체 "한국당 5·18 진상규명 의지 환영"

5월 단체는 '헬기 사격을 포함한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밝혀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성명을 환영한다고 23일 밝혔다.

5·18민주공화당,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도 진상규명 의지를 밝혔고 자유한국당도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며 "가해자인 전두환마저 자신이 5·18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모두가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5·18진상규명을 위해 조사권과 수사권을 갖는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돼 철저히 조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자유한국당도 이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우회전 못하게 왜 막아" 앞차 1.7km 쫓아가 보복운전



○--앞차지 길을 비켜주지 않아 우회전을 못했다는 1.7km를 쫓아가며 보복운전을 한 50대가 경찰서행. ○-23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김모(57)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20분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의 한 빌딩 앞 도로에서 앞서가던 스포카 승용차가 길을 비켜주지 않아 자신의 스포카 차량으로 뒤

따라가 중앙선 쪽으로 밀어붙이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

○--김씨는 상대방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자 같은 차선으로 이동해 위협을 가하고 추월해 급제동 하는 등 약 1.7km를 쫓아가며 보복운전을 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상대방이 길을 비켜주지 않아 우회전을 하지 못해 화가 나서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 /전은재기자 ej6621@



23일 오후 목포신항 세월호 수습 현장에서 미수습자 가족들이 전날 발견된 유골의 운구 모습을 침통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구명조끼 입은 유골 수습 임치안치실 옮겨

세월호 3층 객실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온전한 모습으로 발견된 유해가 온전한 사람 형태의 모습으로 수습되어 세상 밖으로 나왔다.

지난 22일 세월호 선체 3층 선미 좌현 객실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채 발견된 유해의 운구가 23일 목포신항에서 진행됐다.

이날 오후 2시께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의 김철호 과장의 지시 아래 수습된 유해의 운구가 시작됐다. 수습된 유해는 관에 담겨 검은 정장을 입은 장례지원반 직원에 의해 내려온 관은 곧바로 리무진 장의차로 옮겨졌다. 현장에서 지켜보던 미수습자 가족들도 일제히 눈

물을 흘리며 지켜봤다.

수습된 유해는 임시안치실로 옮겨진 뒤 원주에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져 DNA 검사 등을 거쳐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계획이다.

세월호 선체 수습은 이날까지 3~5층 객실에 대한 44개 구역 중 23개 구역의 수색을 마치면 전체 52%에 해당하는 선체수색을 마쳤다. 지난 22일부터 세월호 침몰 현장인 맹골수도에서 진행된 수습 음파탐

지(소나)를 동원한 수중수색 작업은 이날까지 총 50개의 탐색구역 중 22번째 구역까지 수중수색을 마쳤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세월호에서 수거된 휴대전화를 전문업체에 복원을 의뢰한 가운데 휴대전화 15대 중 3~4대에 있어 일부 데이터가 복원됐다고 23일 밝혔다.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일부 데이터는 진상규명의 증거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풍암동 중심 상가



대지 400평, 건물 100평 **매매가격 1,700,000,000**

장성 서산면 송현리 (공장)



대지 1361평 최저가 657,000,000
건물 372평 감정가 938,000,000

동구 대인동 근린주택 (4층건물)



토지 128평 최저가 885,000,000
건물 250평 최고가 885,000,000

나주 문평면 옥당리, 둔사



토지 1417평 최저가 224,000,000
건물 484평 최고가 321,000,000

화순 도곡면 천암리 (숙박시설)



대지 978평 최저가 993,000,000
건물 1294평 최고가 3,788,000,000

서구 화정동 원릉(화정역인근)



토지 94평 최저가 549,000,000
대지 157평 감정가 784,000,000

남구 서동 근린주택



토지 79평 최저가 553,000,000
건물 115평 감정가 553,000,000

운암동 기전빌라



22평형 6가구 (수역성 전용)
대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 5억2천만원
세대당 용자 6,000만원 월세45만원

제일오피스텔 29층



감정가격 9,000만원
매매 6,300만원
보증금 500만 월세 25-40만원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